

안데르센 동화에 나타나는 잔인성,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추상적 개념에 대한 완역본과 아동도서 간 비교 — 『미운 오리 새끼』와 『인어 공주』를 중심으로

김나연(Nayun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Nayun Kim (2016), Comparison of a complete translation of Andersen Fairytales and its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brutality, sexual expression, violence, and abstract concept. *The research compares a complete translation of Andersen Fairytales 'Ugly Duckling' and 'Little Mermaid' and its children's literature specifically in brutality, sexual expression, violence and abstract concept. There are major differences as ideology reflected and invaded in translation. As children's literature main reader is children, adults invaded and rewrote children's literature as they thought some contents are inappropriate for children or too hard for children to understand. Translation strategies such as omitting, purification, and simplification are used in children's literature of Andersen Fairytales compared to its complete translation. Also, the research deals with functions and features of children's literature which results in differences in translation. It includes aesthetical purpose, educational purpose, and purpose for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mmoral thoughts and behaviors. The research aims to further discuss the direction of children's literature between literature in its complete version and rewriting considering children as main read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 children's literature, Andersen fairytales, ideology, translation strategy, rewriting

1. 서론

안데르센은 동화의 거장으로, 생애 200여 편의 동화를 남겼다. 그의 동화는 누구나 어린 시절 한번쯤 읽어봤을 것이다. 안데르센 동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보급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 책은 안데르센이 쓴 원작과 차이가 있다. 아동도서이기 때문에 주독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었다. 이데올로기란 Lefevre (1998: 48)에 따르면 “특정 시기에 특정 사회에서 허용되는 의견이나 태도이고, 이데올로기를 바탕

으로 독자나 번역사는 텍스트에 접근한다.”본 연구는 안데르센 동화의 완역본과 어린이를 대상 독자로 쓴 아동도서 비교를 통해서 이데올로기 개입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텍스트로, 완역서 <안데르센 동화집>(햇살과나무꾼 옮김, 시공주니어, 2010)와 아동 도서 <안데르센>(함영연 엮음, 계림, 2005), <안데르센 동화>(지연서 엮음, 그린북, 2004), <안데르센 동화>(이상배 엮음, 파랑새, 2013)를 비교하여 잔인성,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추상적 개념이 나타나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완역서의 대상독자는 시공주니어 출판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다. 즉 대상 독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하는 이중독자이다. 반면에 분석할 세 권의 아동 도서는 서문에서 아동을 대상 독자로 본다는 것을 명시하고 글씨체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안데르센의 대표작인 『미운 오리 새끼』와 『인어 공주』의 완역서와 아동도서를 비교하면서, 잔인성, 선정성, 폭력성, 추상적 개념이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 안데르센 동화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안데르센 동화 원작을 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떤 이데올로기 반영으로 어떻게 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원작과 아동 도서 간의 변형과 그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데올로기와 아동문학 번역

이데올로기란 Lefevre (1992: 16)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 관습, 그리고 신념의 틀이다.” Lefevre (1992: 2)는 문학 텍스트 수용 또는 거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지배하는 매우 구체적인 요인들, 즉 권력, 이데올로기, 제도 그리고 조작 등의 이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Lefevre에게 있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학을 개작하고 일반 대중의 문학 소비를 지배한다. 이렇듯 개작을 하도록 하는 동인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문학 사조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Lefevre (1992: 16)에서 문학 시스템 내에서 번역이 세 가지의 주요 요소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고 기술한다. 그가 말한 요소란 문학 시스템 안의 전문가, 문학 시스템 바깥의 후원자, 지배적 문학 사조를 가리킨다. 문학시스템 바깥의 후원자는 문학이 읽히고, 쓰이고, 개작되도록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후원자의 예로는, 출판인, 미디어 같은 개인의 집단이나 학술원 같은 문학과 문학 사상의 전파를 규제하는 제도나 기관이 있다. 이러한 후원의 구성 요소로 이데올로기적 요소, 경제적 요소, 지위적 요소를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소재의 선택과 표현 또는 전달 방식을 제약한다. Lefevre (1992: 41)에서 번역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때의 이데올로기는 번역자 스스로의, 또는 후원자가 번역자에게 부여한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데올로기는 번역 전략과 특정 번역 문제에 대

한 해결 방식을 결정한다. 번역 전략으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이 있다.

Shavit은 이와 관련된 아동문학 이론을 제시하며 폴리시스템에서 아동문학 위상이 주변적이라고 한다(2006: 59). 아동문학의 낮은 위상으로 번역가는 텍스트를 조작할 수 있다. 이때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아동문학의 교육적 역할이다. 텍스트는 교육적이고 아동들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독서 능력과 이해력을 고려해서 이야기의 줄거리, 인물,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Shavit(2006: 59)에서는 다섯 가지 제약과 번역 규범을 제시한다. 첫째, 텍스트는 기존 TT모델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른만이 이해할 수 있는 풍자를 아동 도서에서 생략한다. 둘째, 지배적인 도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한다. 예를 들어,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생략한다. 셋째, 주제, 인물,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아동문학은 교육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 ST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맞게 상당히 바뀐다. 다섯째, 문체 규범에 맞게 각색된다.

필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어떻게 완역본과 아동 도서에서 잔인성, 선정성, 폭력성과 같이 논란이 있는 소재를 표현했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Shavit(2006: 59)이 제시한 아동문학의 교육적 역할과 관련 있으며, 특히 “지배적인 도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나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그리고 “아동문학은 교육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된다” 와 같은 입장이다. 다음 장에서 『미운 오리새끼』와 『인어공주』에 내포된 폭력성, 선정성, 잔인성, 그리고 추상적 개념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아동도서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고찰해보겠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Hervey(1997)은 이데올로기가 언어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ST이데올로기를 따르지 TT이데올로기를 따르지에 따라 번역전략이 바뀐다고 한다. 번역전략으로는 ST의 함축된 이데올로기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이다. 그리고 Puurtinen(1998)은 이데올로기 작동법 중에서 가변성을 영원성으로 표현하는 구상화에 중점을 두고, 번역 전략으로 수동태 사용, 명사화 등을 다룬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가 언어선택과 번역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은 Hervey(1997)와 Puurtinen(1998) 같다. 하지만 Hervey(1997)처럼 번역전략을 ST에 함축된 이데올로기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서 ST가 완곡하게 표현되거나 생략되었다는 관점이다. 신지선(2006)은 『걸리버 여행기』 완역본과 아동도서의 차이를 교육적 목적에서 고찰했고, 박선희(2012)는 『홍당무』의 성인본과 아동본을 비교하면서, 의미 순화, 의미 단순화, 생략, 구문 생략 등 번역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우학(2010)은 미국 아동문학 중 검열 대상이 된 도서를 고찰했다. 본 연구는 완역본과 아동도서를 비교하면서 검열 대상을 본 틀은 신지선(2006) 연구와 유사하다. 신지선(2006) 연구는 완역본과 비교해서 아동도서에서 생략된 부분을 선정적인 묘사,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 제도 및 체제에 관한 풍자,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여성을 혐오하는 묘사로 분류해서 서술하고, 이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한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변환 현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완역본의 선정성, 잔인성, 폭력성을 내포하는 내용이 아동도서에서 생략된다는 것을 살펴본 것은 신지선(2006)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살펴보고, 생략하고 단순화하는 번역전략이 바람직한지 고찰하고, 추상적 개념(사랑, 영혼, 감정)을 추가해서 완역본과 아동도서를 상세히 비교했다.

3. 사례 분석

분석 텍스트로, 한국어 텍스트로 완역서는 <안데르센 동화집>(햇살과나무꾼 옮김, 시공주니어, 2010)를 선정했다. 시공주니어 홈페이지¹⁾에 따르면 완역서는 원작을 각색하거나 축약하지 않은 정본들을 토대로 한 줄 한 줄 충실히 옮긴 번역이라고 제시한다. 이 완역서는 영어 텍스트 <The Complete Andersen>(Jean Hersholt 옮김, The Heritage Press, 1949)를 기본으로 번역되었다. 영어 텍스트는 남덴마크 대학교 안데르센 센터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www.andersen.sdu.dk)에 실려있다. 아동 도서로는 <안데르센>(함영연 엮음, 계림, 2005), <안데르센 동화>(지연서 엮음, 그린북, 2004), <안데르센 동화>(이상배 엮음, 파랑새, 2013)을 분석했다. 분석 텍스트는 그림책, 명시적 교육적 목적(논술 대비 등)이 있는 책을 제외하고, 유아를 대상독자로 한 그림책보다 서술이 자세한 텍스트를 선정했다. <안데르센>(함영연 엮음, 계림, 2005)은 서문에서 독자를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여러 차례 지칭하고, 글씨체가 큰 것을 미루어 보아, 어린이를 대상독자로 보았다. 또한 <안데르센 동화>(지연서 엮음, 그린북, 2004)는 엮은이가 동호작가 이상배이고, 서문에서 “이 책에 실린 11편의 동화는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읽고 좋아하는 작품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썼다. <안데르센 동화>(이상배 엮음, 파랑새, 2013)는 서문에서 어린이에게 대화하는 문체로 쓴 것으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대상독자로 보았다.

3.1. 폭력성

『미운 오리 새끼』에는 주변 동물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따돌리면서,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 특히 언어적 폭력이 있는 장면이 많다. 미운 오리 새끼는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무리에 끼지 못하고, 놀림의 대상이 된다.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 들오리, 고양이와 암탉 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된다. 이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겪는 시련은 폭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폭력성을 완역본과 아동 도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도서는 출판사와 출판연도를 표기했다.

1) <http://www.sigongsa.com/junior/bookView.php?bookcode=SB000880&catecode=01050106>

<예시 1>

완역본: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가엾은 새끼 오리는 다른 새들한테 쫓겨 다녔어요. 형제들도 새끼 오리를 괴롭히며 “너같이 못생긴 애는 고양이한테나 물려 갔으면 좋겠어!” 하고 쓰아붙였고, 어미 오리조차 “차라리 어디론가 가 버렸으면!”하고 꾸밈을 했죠. 오리들은 물고 닭들은 쪼고 모이를 주러 오는 아가씨는 발길질을 해 댔어요(햇살과 나무꾼 2010: 159).

계림(05): 날이 갈수록 놀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았습니니다. “저렇게 못생긴 오리가 우리 형제라니, 차라리 고양이한테 물려 갔으면 좋겠어.” 형제 자매들은 미운 오리새끼를 창피해 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들은 물어뜯고, 닭들은 부리로 쪼아댔습니다. 모이를 주는 여자 애는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함영연 2005: 27).

그린북(04): 그 후로도 미운 오리 새끼는 계속해서 여러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형제 오리 새끼들까지도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어미 오리가 걱정을 할까 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서 2004: 139).

파랑새(13): 엄마 오리가 위로했지만 미운 아기 오리는 여전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 못난이는 고양이가 잡아가지도 않나?” 형제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부리로 물어뜯었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병아리들도 무시하며 부리로 쪼아 댔습니다

(이상배 2013: 40).

완역본에서는 아기 오리가 다른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상세히 묘사된다. 아기 오리는 견디기 힘들만큼 쫓겨 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쪼이고, 발길질 당한다고 서술된다. 이는 아동 도서에서 완화되거나 생략되었다. 계림(05)에서 ‘형제 자매들도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았습니니다.’라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그린북(04)에서는 상세한 묘사 대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파랑새(13)에서는 폭력의 주체가 5명(새, 형제, 어미, 오리, 닭, 아가씨) 에서 2명(형제, 병아리)로 줄었다. 또한 완역본과 아동도서에서 보이는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는 엄마 오리의 관점이다. 완역본에서는 어미 오리가 “차라리 어디론가 가 버렸으면!”이라고 하는데, 이는 처음에 미운 오리 새끼를 믿고 사랑하던 어미 오리의 변화된 심정을 보여주고,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떠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인데,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그린북(04)에서는 아기 오리는 엄마 오리가 걱정할까 봐 배려를 하고, 파랑새(13)에서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위로하면서 혼자서 아기 오리 편에 선다. 이는 아동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믿을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성장하는데 엄마의 믿음과 사랑은 많은 영향을 준다. 아동 도서에서 이를 고려해서 엄마의 배신을

믿음과 사랑으로 변형했다. 또한 아동 독자가 엄마로 상징되는 어미 오리들의 언어적 폭력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완역본과 아동도서의 총 분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변형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동도서는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시 2>

완역본: 들오리들이 말했어요. “너 진짜 못생겼다! 하긴 뭐, 상관없어. 우리 가족 중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가없는 새끼 오리는 결혼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골풀 밭에서 쉴 수 있고 높은 물을 조금 마실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햇살과 나무꾼 2010: 160).

계림(05): “미운 오리 새끼는 그곳에서 들오리를 만났습니다.” (함영연 2005: 27)

그린북(04): 한참을 가다 보니, 들오리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늪까지 와 버렸습니다. “넌 누구니?” “저는 집오리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못생긴 오리네.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들오리들도 미운 오리 새끼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지연서 2004: 140).

파랑새(13):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늪에는 다른 새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들오리, 기러기 등이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그런데 넌 참 못생겼구나.” 모두들 이름도 묻지 않고 이렇게 첫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상배 2013: 40).

<예시 3>

완역본: (중략) 흥,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럼 대체 누가 이해한 말이지? 나는 그렇다 치고, 설마 네가 고양이나 할머니보다 똑똑하다고 우길 셈은 아니겠지? 나라도 어린 주제에 건방지긴! 그보다 남이 베푼 친절을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고 우리와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바보라니! 널 상대하는 건 딱 질색이야, 정말! 그래도 널 걱정하니까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는 거라고. 이런 걸 진짜 친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 낳든지 목을 가르랑거리든지 불꽃을 튀게 하려고 애써 보란 말이야. (햇살과 나무꾼 2010: 165)!

계림(05): 생략

그린북(04): “그 곳에서도 고양이와 암탉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연서 2004: 142)

파랑새(13): “암탉이 미운 아기 오리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이상배 2013: 42)

<예시 2>와 <예시 3>은 주변 동물들이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에게 언어적 폭력

을 가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소외감을 느끼는 장면이다. <예시 2>의 완역본에서 들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 외모를 놀리고 자신의 집단에 소속을 거부한다. 또한 ‘가없는 새끼 오리는 결혼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절은 미운 오리 새끼가 소외감을 느끼고 집단의 소속감을 포기한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계림(05)에서는 단순히 ‘미운 오리 새끼는 그곳에서 들오리를 만났습니다.’라고 표현되었다. 이는 완역본에서 중요한 테마인 배타심과 소외감을 생략하고, 단순히 행동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린북(04)에서는 놀리고 괴롭힌다고 압축적으로 표현했고, 파랑새(13)에서는 단순히 아기 오리의 외모를 비하한다.

또한 <예시 3>의 완역본에서 암탉은 지능적이고 심리적인 언어 폭력을 가한다. 암탉은 미운 오리 새끼에게 자신만의 세계관을 강요하고, 진짜 친구라서 걱정되어서 이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이는 현실적인 언어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언어폭력으로,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동도서에서 모두 완화되거나 생략됐다. 계림(05)에서는 이 부분 전체가 생략됐다. 그린북(04)에서는 구체적인 언어폭력을 서술하기 보다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파랑새(13)에서는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했다.

그렇다면 완역본의 작가 의도를 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동도서에서는 언어 폭력적인 장면을 생략했을까? 이를 논하기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당하는 폭력성과 배타심은 작가의 생애를 반영했다. 헛살과 나무꾼 (2010: 2)에 따르면 안데르센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 코펜하겐으로 떠난다. 하지만 큰 키에 깡마른 몸, 불품없는 얼굴을 한 안데르센을 보고 어느 극단도 반기지 않는다. 또한 안데르센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철자와 문법을 틀려 비웃음 사기 일쑤였고, 별볼일 없는 시골 출신이란 명에에 갇혀 늘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불운했던 환경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30세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발표한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것처럼 안데르센 또한 동화작가로서 재능을 인정받고 ‘동화의 임금’ 자리에 오른다. 이처럼 작가의 생애와 철학을 반영한 배타심과 소외감이 아동도서에서 많이 삭제되어서 필자는 아쉬웠다. 인생의 부정적인 모습도 현실적으로 담은 입체적인 동화가 단순화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 도서라는 제약 때문에 삭제될 수 밖에 이유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폭력성이 삭제된 이유로, 아동문학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강인언 (1988: 13)에 따르면 우선 아동문학은 인본주의 문학으로서의 윤리성과 교육성을 그 내용적 특징으로 삼는다. 이러한 윤리성과 교육성은 아동문학의 근본적 특징의 하나인 단계성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것은 아동문학 작품이 각각의 심심발달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정신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그들의 연령단계에 알맞은 내용을 갖추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을 미적 인식과 감동에 의해 전달하는 것도 아동문학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교훈적

내용은 선악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심미적인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듯 강인언 (1988: 13)에 따르면 아동문학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별해서 전달해야 한다. 또한 그는 “교훈적 내용은 선악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심미적인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미운 오리새끼』에서 악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심미적이고 교육적인 입장을 고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원수 (1984: 146)에 따르면 동화는 그 독자가 아동임을 전제로 하고, 아동에게 이해되고 그들의 심정에 감동을 주어 문학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과대한 자극, ‘부도덕에의 감염’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동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폭력은 아동에게 과대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따돌림은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기 오리가 외모로 인해서 주위 모든 동물들이 괴롭히고 따돌리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었다면, 아동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남들과 다르며 따돌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올바르지 않고 비도덕적이므로 아동도서에서 완화되거나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3.2. 선정성

‘인어 공주’에서는 선정성 정도는 낮지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묘사하거나 애정 행각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 여성의 가슴이나 알몸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고, 인어 공주와 왕자 사이의 입맞춤과 포옹 같은 애정행각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완역본과 아동 도서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시 4>

완역본: “피둥피둥 살찐 흉측한 바다뱀을 귀여운 병아리라고 부르며 물경물경한 자기 가슴 위로 기어 다니게 했어요.”(햇살과 나무꾼 2010: 161)

계림(05): “온몸에 물뱀과 두꺼비를 감고 있는 마녀가 웃어댔습니다.”

(함영연 2005: 114)

그린북(04): “곧 머리가 수십 개 달린 뱀을 몸에 감고 있는 마녀가 소름 끼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지연서 2004: 120)

파랑새(13): 생략

<예시 5>

완역본: “하지만 공주는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길고 탐스러운 머리칼로 몸을 가렸지요.”(햇살과 나무꾼 2010: 166)

www.kci.go.kr

계림(05): 생략
그린북(04): 생략

파랑새(13): 생략

<예시 4>는 인어공주가 마녀를 찾아가서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마녀의 등장을 보여준다. 완역본에서 ‘물경물경한 자기 가슴’이라고 표현한 선정적인 여성 신체 묘사가 아동도서에서 모두 삭제됐다. 계림(05)에서는 ‘감고’라고 표현했고 그린북(04)에서는 ‘온몸에 감고’라고 묘사했다. 파랑새(13)에서는 민감한 여성 신체 묘사를 생략했다. 또한 <예시5>는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어서 왕자를 만나는 장면이다. 완역본에서는 인어공주가 알몸으로 묘사되는데 아동도서에서 전부 생략됐다. 성과 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한 묘사는 아동도서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아동은 성에 무지하고, 성을 알기에는 어린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에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아동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 아동문학에서 검열되는 대상은 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아동, 청소년 도서들이 있다. 성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전통적 질서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나 비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 동성애, 혼전임신, 매춘 등을 표현하는 책들이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우하 2010: 315). 『인어공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정도가 약하지만, 성을 검열의 대상으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남녀 애정행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6>

완역본: “그리고 왕자를 품에 안고 왕자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 맞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햇살과 나무꾼 2010: 155-156)

계림(05): 생략
그린북(04): 생략
파랑새(13): 생략

<예시 7>

완역본: “그리고는 인어 공주의 빨간 입술에 입 맞추고 긴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공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햇살과 나무꾼 2010: 172)

계림(05): 생략
그린북(04): 생략
파랑새(13): 생략



<예시 6>에서는 완역본에서 인어공주가 ‘왕자를 품에 안고 입 맞추던’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이 아동도서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시 7>에서는 완역본에서 이성간의 애정 행위가 세 권의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이처럼 남녀 애정 행위가 아동 도서에서 전부 삭제된 것은 눈에 띈다. 이와 같이 아동도서에서 애정 행위를 전부 삭제한 것은, 아동에게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여기고 금기하는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필자는 이를 어른의 통제라기 보다는 아동에 대한 보호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가지만, 아동과 청소년만은 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관념이 있다. 또한 성에 대해서 무지한 순수한 아동들에게 성과 이성 간의 애정 행위를 미리 알려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보편적이다. 아리에스(P. Aries)에 따르면 “어린이를 어른과 구별되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따라서 어린이에게 맞는 별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태도는 18-19세기를 경과하면서 현대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3.3. 잔인성

‘미운 오리새끼’에는 따돌림과 같은 폭력성과는 다른 죽음과 연관된 잔인한 장면이 묘사된다. 미운 오리 새끼가 집을 떠나서 만나고 대화를 나눈 기러기는 총에 맞아 죽는다. 또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에게 다가가는 장면에서는 죽음을 수 차례 언급한다. 그리고 ‘인어공주’에는 칼, 피, 죽음과 같은 잔인한 소재들이 묘사된다.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면서 겪는 고통이 이와 같은 잔인한 소재들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미운 오리새끼’와 ‘인어공주’에서 묘사한 잔인성을 완역본과 아동도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시 8>

완역본: ““탕! 탕!” 그 순간 기러기 두 마리는 골풀 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늪의 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헛살과 나무꾼 2010: 161)

계림(05): “탕, 탕! 바로 그 순간, 공기를 가르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두 마리 기러기가 총에 맞고 갈대 숲으로 떨어졌습니다.”(함영연 2005: 28)

그린북(04): ““탕! 탕!”하고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기러기 두 마리는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지연서 2004: 141)

파랑새(13): “그때 갑자기 탕하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아오르던 기러기 한 마리가 총에 맞아 떨어졌습니다.”(이상배 2013: 41)

<예시 8>은 아기 오리가 기러기를 만나는데, 기러기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다. 완역본에서는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

면에 계림(05)에서는 ‘숲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묘사했고, 파랑새(13)에서는 ‘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두 권의 아동도서에서는 죽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서 묘사했다. 또한 완역본에서 기러기의 죽음을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라고 묘사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은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묘사한다. 이는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된다.

<예시 9>

완역본: 저 아름답고 당당한 새들에게 날아가자! 저 새들은 나처럼 못생긴 새가 함부로 다가왔다며 날 죽이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오리한테 물리고 닭한테 쪼이고 모이는 아가씨한테 차이고 추운 겨울 내내 죽도록 고생하느니 차라리 저 새들한테 죽는 게 나아(햇살과 나무꾼 2010: 169)!

계림(05): “저 멋진 새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함영연 2005: 31)

그린북(04): ““아름다운 백조님, 안녕하세요?” 미운 오리 새끼는 용기를 내어 다가옵니다.”(지연서 2004: 144)

파랑새(13): “나도 백조들과 함께 해엄을 쳐야지.” 미운 아기 오리는 가는 곳마다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미운 아기 오리에게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힘차게 날아 강으로 가서 해엄을 쳤습니다(이상배 2013: 47).

<예시 9>는 결말 부분으로,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를 만나는 장면인데, 완역본과 아동도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완역본에서 미운 오리새끼는 죽음을 각오하고 백조에게 간다. ‘날 죽이겠지’, ‘죽도록 고생하느니 차라리 저 새들한테 죽는 게 나아!’ 부분은 미운 오리새끼의 절박한 심정과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된다. 계림(05)와 그린북(04)에서는 아기 오리가 백조에게 다가가고 싶은 심정과 다가가는 행위를 묘사한다. 파랑새(13)에서는 아기 오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용기가 생겼다는 교훈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시 8>과 <예시 9>에서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관한 표현과 묘사를 생략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동도서에서 죽음에 관한 묘사를 생략하거나 완화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동은 죽음보다는 탄생에 가까운 존재이다. 아동은 죽음과는 관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멀다. 또한 아동에게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 가까운 이들을 상실한 아동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아동도서에서는 아동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그림책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미소짓는 사만다』에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는데, 이를 심리학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굿바이 마우지』에서는 아이가 애완동

물의 죽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수용하고 떠나 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동도서에서는 아동을 죽음에 아직은 취약하다고 보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란, 현은자 (2015: 613)에 따르면“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죽음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음은 아동에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서, 아동도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죽음에 관한 묘사를 완곡하게 하거나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어공주』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예시 10>

원역본: (중략) 히드라들이 몇 백 개나 되는 구불구불한 팔과 손가락을 공주 쪽으로 서서히 뻗었어요. 저마다 자기가 붙잡은 것들을 쇠 올가미처럼 단단히 잡고 있었지요. 히드라의 팔 사이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해골이 언뜻 보였어요. 배에서 나온 노나 상자를 움켜쥐고 있는 히드라도 있었고, 육지 동물의 뼈를 쥐고 있는 히드라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건 히드라의 팔에 목이 졸려 죽은 어린 인어 아가씨의 모습이었어요(헝살과 나무꾼 2010: 161).

계림(05): “끈적끈적한 깊은 수렁에서 자라는 움직이는 풀들이 인어 공주에게 달려들고, 뱀 같은 나뭇가지들이 손을 뻗어 왔습니다.”(함영연 2005: 112)

그린북(04): “마녀가 사는 으스스한 동굴에 들어서자, 끈적끈적한 풀들이 인어 공주에게 달려들었고, 뱀 같은 나뭇가지들이 손을 뻗어 왔습니다.”(지연서 2004: 119)

파랑새(13): 생략

<예시 10>은 인어 공주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녀를 찾아 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배경을 독자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도록 묘사했다. 원역본에서 히드라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죽음과 관련된 잔인성을 띄는 소재이다. 예를 들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해골’, ‘육지 동물의 뼈’, ‘목이 졸려 죽은 어린 인어 아가씨’는 죽음과 연관된 소재이다.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계림(05)에서 히드라를 ‘자라는 움직이는 풀들’라고 표현했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 단순히 ‘손을 뻗어 왔습니다.’라고 묘사했다. 그린북(04)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표현하고 ‘으스스한’이라고 분위기를 간략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파랑새(13)에서는 이와 관련된 묘사가 전부 생략됐다. 이는 앞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생략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아동도서에서 배경과 관련된 묘사가 생략되면서 어떤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유태영 (2012: 177-178)에 따르면“동화에서 배경은 작중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박진감을 주고 사실감과 그로 인한 신뢰감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위기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원역본의 배경을 읽으면,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녀가 두려운 존재임을 암시한다. 또한 배경은 인어 공주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되거나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배경의 이러한 기능은 상실하게 됐다. 다음으로 『인어 공주』에서 칼과 피를 묘사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예시 11>

완역본: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칼을 밟아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야.”(햇살과 나무꾼 2010: 162)

계림(05): “하지만 다리로 걸으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플 거야.”(함영연 2005: 114)

그린북(04): “그 꼬리 대신 다리가 생기면,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 아플 거야.”(지연서 2004: 120)

파랑새(13): “걸을 때마다 칼에 찢리는 것처럼 아플 텐데요.”(이상배 2013: 68)

<예시 12>

완역본: “인어 공주는 타는 듯이 독한 물약을 마셨어요. 그러자 가냘픈 몸이 날카로운 쌍날칼에 찢리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햇살과 나무꾼 2010: 165)

계림(05): “목소리를 주고 약을 받은 인어 공주는 왕자가 사는 궁전으로 다가가 마법의 약을 마셨습니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함영연 2005: 115)

그린북(04): “결국 목소리를 주고 약을 받아 왕자가 사는 궁전 근처에서 마법의 약을 마셨습니다. 인어 공주는 엄청난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지연서 2004: 121)

파랑새(13): “인어 공주는 곧바로 해변으로 가서 물약을 마셨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칼이 몸을 찢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이상배 2013: 70)

<예시 11>에서 완역본은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면 겪을 고통을 상세히 묘사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칼’,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고통’은 모두 인어공주가 겪을 아픔을 명시화해서 보여준다. 계림(05)와 파랑새(13)에서는 칼에 찢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는 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과 같은 상세한 묘사는 생략했다. 그린북(04)에서는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완역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고통’은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예시 12>는 인어공주가 사람으로 변하면서 겪는 아픔을 묘사한다. 완역본에서는

이를 ‘가냘픈 몸이 날카로운 쌍날칼에 찢리는 듯한 아픔’이라고 묘사했다. “쌍날칼”이라는 잔인성을 띤 소재를 사용해서 묘사했는데, 이는 계림(05)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그린북(04)에서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잔인성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했다. 파랑새(13)에서만 날카로운 칼을 그대로 사용해서 고통을 묘사했다.

앞선 사례에서 분석하듯이 잔인성은 왜 생각되거나 완곡하게 표현될까? 이러한 잔인성이 아동들에게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어른들이 생각해서 변형되었다. 이는 잔인한 장면이 많이 포함된 영화에 나이 제한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문학교육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생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이콥스(L. B. Jacobs) (1996)에 따르면 문학교육의 목적으로 6가지를 들었다. 그 중에서 그는 “문학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문학은 생활지도의 역할을 담당해 준다.”, “문학은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앞서 제시한 잔인한 묘사들이 아동도서에서 여과 없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주원 (2013 :93)에 따르면 아동문학교육의 목표로 심미적 정서의 함양이 있다. 문학교육에서 목표를 삼는 ‘심미적 정서’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문학 언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이면에 깔려 있는 모든 감동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아름다움의 태도로써 쌓으려는 정서적 경향이다. 어린이들은 아동문학을 읽는 동안 문학적 체험에 의한 정서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완역본에서 잔인성을 묘사하는 소재들이 아동에게 정서적 아름다움을 느끼기 보다는 무서움, 두려움, 충격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완곡하게 묘사하거나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3.4. 추상적 개념

추상적 개념이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이 추상적 개념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랑, 영혼, 감정을 다룬다. ‘인어 공주’에서는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 주고, 영혼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를 보면서 그리고 백조가 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3.4.1. 사랑

『인어 공주』에서는 널리 알려진 대로 인어공주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이 되지만, 끝내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상현 (1987: 207-208)에 따르면 “인어공주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의 비극, 죽음으로써 성취한 사랑의 완성, 영혼의 영원성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등 이다. 또한 “인어공주는 특히 이성간의 깊은 사랑의 본질과 아픔을 본격적으로 다룬 세계 최초의 동화

이기도 하다.” 원작 『인어 공주』에서는 사랑을 심층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 반해서 아동도서는 이를 축약했거나 생략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13>

완역본: 게다가 왕자가 자기 부모도 잊어버릴 만큼 널 좋아하고 너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부가 너희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고 부부가 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어.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다음 날 아침 너는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되어 버릴 거야(헝살과 나무꾼 2010: 163).

계림(05): “그리고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너는 물거품이 되고 말아.”

(함영연 2005: 114)

그린북(04): “그리고 왕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되고 말거야.”(지연서 2004: 120)

파랑새(13): “반드시 왕자의 사랑을 얻어서 결혼해야 해요.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공주님은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말 테니까요.”(이상배 2013: 69)

<예시 13>은 마녀가 인어공주에게 인간으로 변하는 약을 주면서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완역본에서는 사랑을 ‘자기 부모도 잊어버릴 만큼 널 좋아하고 너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사랑의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사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깊게 사랑을 하면 영원을 꿈꾸고 결혼을 약속한다. 이런 사랑의 측면이 완역본에서 암시하고 표현된다. 하지만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축약되었다. 계림(05)에서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라고 서술함으로써 사랑보다는 결혼 상대에 초점을 두었다. 그린북(04)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파랑새(13)에서도 ‘사랑을 얻어서 결혼’라고 축약해서 표현했다. 이는 아동이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어려운 관념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에게 ‘부모님보다 더 좋고 계속 생각나고 영원을 꿈꾸 결혼하는 것이 사랑이다.’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사랑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예시 14>

완역본: 난 네가 가장 좋아.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날 잘 따르니까. 게다가 넌 내가 예전에 보았던 젊은 아가씨랑 닮았어. 그 아가씨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단다. 나는 예전에 배가 뒤집혀 어느 훌륭한 수도원 근처의 바닷가로 떠밀려 간 적이 있어. 그곳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가씨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 줬지. 나는 그 아가씨를 딱 두 번밖에 보지 못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가씨뿐이야. 그런데 너는 그 아가씨랑 너무 닮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밀어 내 버릴 것 같아. 그 아가씨는 평생 하느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의 신이 너를 나한테 보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둘은 절대 헤어지지 말자(헛살과 나무꾼 2010: 169-170)!

계림(05): “나를 구해 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 아가씨는 교회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구나. 넌 그 아가씨와 참 많이 닮았어. 어찌면 너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지.”(함영연 2005: 115)

그린북(04): “난 나를 구해 준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넌 그 아가씨와 많이 닮았어.그 아가씨를 찾지 못하면 너랑 결혼할게.”(지연서 2004: 122)

파랑새(13): 왕자도 인어 공주를 좋아했지만, 왕자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날 밤, 교회에서 나오다가 왕자를 발견한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왕자는 늘 인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 준 그 아가씨는 지금 해변의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지 만날 수가 없군요.”

(이상배 2013: 70-71).”

<예시 14>는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하는 대사로, 왕자의 복잡한 심정과 사랑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김민웅 (2012: 165-166)에 따르면 왕자는 인어공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그를 사로잡는 다른 여인이 있다. 인어공주를 사랑하는 까닭도 예전에 난파당했을 때 보았던 아가씨와 닮았기 때문이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해안가에서 보았다고 기억하는 여인의 대체물이다. 그리고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코 헤어지지 말자고 한다. 이는 모순적이고 왕자의 이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은 해안가 성전에서 본 여인 하나뿐이라면서 인어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다고 결혼할 확고한 생각도 없으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한다.

현실에서 사랑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고 대체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외로워서 만나기도 한다. 완역본에서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동화임에도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한다.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축약되거나 생략됐다. 계림(05)와 그린북(04)는 매우 유사한데, 이를 축약해서 ‘나를 구해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지만, 못 만나니, 그녀와 닮은 너랑 결혼할 수도 있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는 완역본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가씨뿐이야. 그런데 너는 그 아가씨랑 너무 닮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밀어 내 버릴 것 같아.’ 같이 왕자의 복잡한 심리와 ‘그 아가씨는 평생 하느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의 신이 너를 나한테 보냈나 봐. 그러니까 우리 둘은 절대 헤어지지 말자!’같이 왕자의 이기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파랑새(13)에서는 ‘왕자도 인어 공주를 좋아했지만, 왕자

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는 사랑의 복잡한 측면을 ‘좋아하고’와 ‘결혼’으로 단순화해서 서술한다. 왕자의 이기적인 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15>

완역본: “아, 난 너무너무 행복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이 이루어졌어. 너도 나의 행복을 기뻐해 주겠지? 넌 누구보다 날 사랑하니까.”(햇살과 나무꾼 2010: 174)

계림(05): 생략

그린북(04): 생략

파랑새(13): 생략

<예시 15>는 왕자가 인어공주를 배신하고, 꿈에 그리던 다른 여인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인어공주에게 하는 대사이다. 완역본에서는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니 자신의 행복을 기뻐해달라고 한다. 왕자는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인어공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는 왕자의 이기적인 면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만 인어공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는 교활함, 간사함, 이기심과 같은 비도덕적인 것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예시 14>와 <예시 15>같이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아동문학의 특징이 반영되기도 했다.

아동문학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즉, 아동이 잘 알 수 있는 어휘, 아동의 생활에 관계에 있고, 아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진 문학이다. 또한 아동문학은 단순한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동들의 생활이 어른들의 생활에 비해서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성은 자연히 작품의 외형에도 나타나서 짧은 작품을 만들게 하기도 한다. 동시, 동화, 소년 소설에 단편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원수 1984: 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 도서 『인어 공주』에서 인물의 복잡한 심리와 사랑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묘사가 축약되거나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3.4.2. 영혼

『인어 공주』 완역본에서는 영혼에 관한 언급이 많고, 영혼은 주제와 밀접한 중요한 소재이다. 완역본에서 인어공주는 ‘영원한 영혼’을 갈구하고, 왕자와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죽음 이후 3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면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구원’과 ‘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구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바 영덕 2009: 79).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 영생을 믿고 천국과 ‘영원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 『인어 공주』에서 영혼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16>

완역본: 인어 공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인간은 물에 빠져 죽지만 않으면 언제까지나 살 수 있나요? 바다 밑에 사는 우리와 달리 죽지 않아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아니, 인간도 죽는단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 우리는 300년이나 살 수 있지. 죽고 나면 바다의 물 거품이 되어 버리지만 말이야. 그래서 바다 밑에 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단다. 우리한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없어. 물론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고 우리는 초록빛 골풀 같은 존재라서, 한 번 베어지면 두 번 다시 싹이 나지 않아.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지. 육체가 죽어 흙이 된 뒤에도 영혼은 살아 있단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지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까지 올라가지. 우리가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인어 공주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한테는 왜 죽지 않는 영혼이 없나요? 아, 단 하루 만이라도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에 오를 수 있다면, 나한테도 주어진 300년의 생명을 모조리 버려도 좋아요!”(중략) “그럼 저도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더는 파도 소리도 못 듣고 아름다운 꽃과 붉은 태양도 볼 수 없나요?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햇살과 나무꾼 2010: 156-157)

계림(05): 인어 공주는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물에만 빠지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삼백 년을 살지만 사람들은 조금밖에 살지 못한다. 우리는 죽으면 물거품이 되지. 하지만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별이 된단다.” “저도 사람들처럼 영혼을 가질 수 없나요?” “어느 한 사람에게 사랑의 약속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지. 하지만 인어가 두 다리를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내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함영연 2005: 111-112)

그린북(04): 인어 공주는 인간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나요?” “우리는 삼백 년을 살지만, 사람들은 훨씬 조금 밖에 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 물거품이 되지만,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으면 그 영혼이 별이 된단다.” “그렇군요. 저도 사람들처럼 영혼을 가질 수는 없나요?” 인어 공주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사랑의 약속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단다. 하지만 인어가 두 다리를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지연서 2004: 118)

파랑새(13): 생략

www.kci.go.kr

<예시 16>은 인어공주가 영혼에 대해서 할머니에게서 듣고 알게 되는 장면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서구 기독교 교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오랜 세월 교회의 가르침으로, 영혼이란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종교적인 은총이다. 종교에서는 영원한 영혼을 얻으려면 신을 믿고 그 구원의 손길에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인간의 사랑을 얻어야 영원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김민웅 2012: 147). 이처럼 이 장면은 기독교 교리가 담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혼에 관해서 서술했다. 이는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지. 육체가 죽어 흩어 된 뒤에도 영혼은 살아 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지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같이 상세히 서술했다. 계림(05)과 그린북(04)은 이 장면을 유사하게 서술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별이 된다고 표현했다. 이는 완역본에서 인간의 영혼이 별까지 올라가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논리와 다르다. 또한 파랑새(13)에서는 전체가 생략되었다. 이처럼 완역본과 아동 도서에서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영혼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동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인 영혼을 ‘영혼이 별이 된다.’같이 영혼을 눈에 보이는 별로 비유했다. 영혼과 관련된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17>

완역본: 아름다운 왕자 생각과 왕자처럼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을 떨쳐 낼 수 없었지요. (생략) 공주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분이 배를 타고 이 위를 지나가는 게 틀림없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사랑하는 왕자님이. 꿈에도 그리는 나의 왕자님! 그분이라면 내 일생의 행복을 맡겨도 좋아. 왕자님과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거야!’(헛살과 나무꾼 2010: 159)

계림(05): “하지만 인어 공주는 기쁘지 않았습디다. 왕자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함영연 2005: 112)

그린북(04): “하지만 인어 공주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디다.”(지연서 2004: 118)

파랑새(13): 생략

<예시 17>을 살펴보면, 완역본에서 인어공주는 무도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왕자님과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거야!’라고 한다. 필자는 이 장면에 특히 주목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읽은 기억 속 인어 공주에서는 인어공주가 단순히 왕자를 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완역본을 보면 인어공주는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계림(05)에서는 인어공주는 단순히 왕자를 갈

구한다. 그리고 그린북(04)과 파랑새(13)에서는 생략됐다. 다음으로 『인어공주』에서 영혼과 관련된 결말을 살펴보자.

<예시 18>

완역본: 그렇게 30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일을 하면, 우리도 인간처럼 죽지 않는 영혼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엾은 인어 공주님, 당신도 우리처럼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참고 견뎌 공기의 정령의 세계로 올라왔죠. 앞으로 착한 일을 계속한다면 300년 뒤에는 당신도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중략)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에게 사랑 받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를 발견하면, 하느님은 그날 하루를 시험 시간에서 빼 주시지요. 아이들은 우리가 그 방 안을 날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착한 아이를 발견하고 기뻐서 빙그레 웃으면 300년 중에서 일 년이 줄어들죠. 반대로 버릇없고 못된 아이를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시험 기간이 하루씩 늘어납니다!(햇빛과 나무꾼 2010: 179-181)

계림(05): 착한 일을 하러 세상 속으로 가지요. 삼백 년 동안 시원한 바람을 불어 주고 신선한 꽃 향기를 뿌려 주면서 착한 일을 하면 당신도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중략) 삼백 년이 지나지 않아도 우린 그 곳에 갈 수 있단다.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는 중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착한 아이를 찾아 내면 신은 우리의 시험 기간을 단축해 주신단다. 그러면 삼백 년 중에 일 년이 줄어들지. 하지만 나쁜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시험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게 되지(함영연 2005: 119).

그린북(04): “착한 일을 하러 가지요. 삼백 년 동안 세상 속에서 시원한 바람도 불어 주고, 달콤한 꽃 향기도 뿌려 주면서 착한 일을 하면 당신도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지연서 2004: 126)

파랑새(13): 생략

<예시 18>에 따르면, 인어공주는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후에 공기의 정령 세계로 가서 3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장면은 인어공주에서 결말 부분으로 작품에서 주제와 밀접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이는 계림(05)과 그린북(04)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로 서술했다. 또한 파랑새(13)에서는 전체가 생략됐다. 이는 이 장면이 아동에게 부적합하고 난해할 수 있다는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문학의 사회적 가치로, 아동에게 미의 인식을 높이고, 감동으로써 인간성을 아름답게 키우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아동은 문학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간접 경험하는데(이원수 1984: 20), 미지의 세계 묘사를

생략함으로써 이 기능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문학의 조건으로 단순 명쾌성이 있는데, 전래동화와 동요의 대부분의 주제와 형식은 단순, 소박함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 대상 독자가 아동이리는데 기 반해서, 단순 명쾌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학을 통해서 아동에게 미 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할지 아니면 어려운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할지는 선택의 문 제이다. 이 선택에는 아동보다는 어른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른이 아동 도서를 쓰 고, 출판사에서 편집하고 부모가 아동도서에 대해서 평한다. 사례들을 통해서, 어렵 고 추상적인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생략하거나 간단한 논리로 전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어른이 아닌 아동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3.4.3. 주제와 관련된 감정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아기 오리가 백조를 만나면서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이는 아기 오리가 사실은 백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의 영역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감정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아기 오리 가 백조가 되면서 백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백조가 된 후 느끼는 감정을 의미 한다. 아기 오리가 백조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 끼고, 다시 만났을 때는 묘한 슬픔을 느끼고, 백조가 되어서는 우월감을 느끼지 않 는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예시 19>

완역본: 백조들이 하늘로 높이높이 날아오르자 못생긴 새끼 오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중략) 아, 저 아름다운 새, 저 행복 한 새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백조들이 사라지자 새끼 오리는 곧장 물 속으로 자 맥질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솟아올랐을 때는 미처 버릴 것 같았답니다. 새끼 오리 는 그 새들이 어떤 새 인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어느 누 구보다 그 새가 그리웠어요. 부러운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저토록 우아하고 아름 다운 모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죠. 하다못해 오리들 무리에 끼지도 못하는 신세니까요.(햇빛과 나무꾼 2010: 167)

계림(05): “와 아름답다. 나도 저 새처럼 아름다웠으면……. 미운 오리 새끼는 여태껏 그렇게 아름다운 새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함영연 2005: 29)

그린북(04):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야. 너무 멋져.” 미운 오리 새끼는 냇을 잃고 쳐다 보았습니다. 백조들은 잠시 목을 축이고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미운 오리 새 끼는 백조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지연서 2004: 143)

파랑새(13): ““정말 아름다운 새야!” 미운 아기 오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지만 백조는 달랐습니다. “나도 백조들처럼 아름답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이상배 2013: 44)

<예시 19>는 아기 오리가 백조를 처음 보고 느끼는 감정을 묘사했다. 완역본에서 아기 오리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고 어느 누구보다 백조를 그리워한다. 이는 아기 오리가 실은 백조이기에 느끼는 동질감이자 미묘한 감정이다. 또한 이런 감정은 나중에 아기 오리가 백조라는 결말을 복선으로 암시한다. 그러므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감정이다. 이 감정을 계림(05), 그린북(04), 파랑새(13)에서는 백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아기 오리로 묘사했다. 즉, 복잡미묘한 감정을 단순히 백조의 아름다움의 감탄으로 전환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 20>

완역본: “새끼 오리는 이 아름다운 새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껏 느껴 보지 못한 묘한 슬픔을 느꼈답니다.”(햇살과 나무꾼 2010: 169)

계림(05): “미운 오리 새끼 기억 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는 아름다운 새들이 있습니다.”(함영연 2005: 31)

그린북(04): “그곳에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백조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지연서 2004: 143-144)

파랑새(13): “언젠가 본 적이 있던 백조들이었습니다.”(이상배 2013: 46)

<예시 20>은 아기 오리가 백조를 재회하는 장면이다. 이때 아기 오리는 ‘이제껏 느껴 보지 못한 묘한 슬픔’을 느낀다. 이 장면에서 아기 오리는 백조로 변했기 때문에 이 감정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아기 오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그 동안 겪은 일들이 보상되는 순간이어서 아기 오리가 묘한 슬픔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아동 도서에서는 모두 앞에 있는 다른 백조들에 초점을 둔다. 이는 앞서 얘기하듯, 복잡한 심리가 아동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원수(1984: 230)에 따르면 “동화는 장르 특징으로 스토리 위주이고 심리묘사에 소홀하다.” 이원수는 이를 비판했는데, 아동문학에서 심리묘사가 적은 이유는 아동문학은 동화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빚어진 사태라고 보며, 아동에게 그러한 것(여기서 심리묘사)이 필요 없다는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라고 한다(이원수 1984: 231). 다음으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주제와 관련된 감정을 살펴보자.

<예시 21>

완역본: “백조는 한없이 행복했지만 조금도 우쭐대지 않았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결코 우쭐대지 않는답니다!”(햇살과 나무꾼 2010: 171)

계림(05): 생략

그린북(04): 생략

파랑새(13): 생략

<예시 21>은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되는 장면으로, 백조가 되었지만 자만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결코 우쭐대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아기 오리가 드디어 백조가 되어서 느끼는 감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생략됐다. 필자는 아기 오리나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어서, 백조가 되어서도 자만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처럼 전체 스토리와 주제와 관련된 감정이 아동 도서에서 모두 생략됐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미운 오리새끼』와 『인어공주』 완역본과 아동도서 비교를 통해서, 폭력성, 선정성, 잔인성, 추상적 개념을 내포한 내용이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분석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반하고 아동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텍스트는 많은 경우 생략되거나 완곡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또한 아동도서이기 때문에 발생한 제약이다. 아동도서는 대상 독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도덕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검열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축약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작가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데르센동화 완역본에서 폭력적인 장면은 완곡하게 표현되거나 생략됐다. 아동에게 폭력성이 내포된 내용이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문학의 조건인 윤리성과 교육성에 맞지 않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 신체부위와 애정 행각을 묘사하는 부분이 삭제됐다. 아동은 성을 알기에 어린 존재로 보고 아동문학에서 성을 검열의 대상으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됐다. 또한 죽음과 칼, 피와 같은 잔인한 소재들의 묘사가 완곡하게 표현되거나 생략됐다. 죽음은 아동에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잔인한 소재들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해서 부적절하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됐다. 그리고 사랑, 영혼, 감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해서 표현되거나 생략됐다. 추상적 개념이 아동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어른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동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쓰는 아동문학의 특징이 반영됐다.

연구의 한계는 안데르센 동화 원본이 아닌 영어본을 기반으로 완역본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영어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모국어로 사용되어서, 영어본 <The Complete Andersen>(Jean Hersholt 옮김, The Heritage Press, 1949)이 많은 나라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잔인성, 선정성, 폭력성이 아동들에게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어서, 생략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류하고 비교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문학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개입되어서 원작의 변형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Baker, M. and G. Saldanha (eds.) (201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Abingdon: Routledge, 137-140.
- Lathey, G. (eds.) (2006). *The Translation of Children Literature a Reader*, UK: Cromwell Press.
- Munday, J.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3rd edn.). New York: Routledge.
- Puurtinen, T. (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43(4)
- Hervey. S. (1997). Ideology and Strategy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33(1).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 Andersen, H. (2010). *Hans Christian Andersen Fairy Tales and Stories 1* (Sunlight, Trans.). Seoul: Sigong Junior.
- Andersen, H. (2010). *Hans Christian Andersen Fairy Tales and Stories 2* (Sunlight, Trans.). Seoul: Sigong Junior.
- Andersen, H. (2005). *Andersen* (Ham, Y. Trans.). Seoul: Guerim.
- Andersen, H. (2004). *Andersen Fairytales* (Ji, Y. Trans.). Seoul: Green book.
- Andersen, H. (2013). *Andersen Fairytales* (Lee, S. Trans.). Seoul: Blue bird.
- Lee, W. (1984). *Introducing to Children Literature*. Paju: Sonyunhangil.
- Lee, S. (1987). *Children Literature Lecture*. Seoul: Leejisa.
- Shin, H. (2014). *Direction of Children Literature Education*. Seoul: Parkleejung.
- Kim, M. (2012). *Reading Fairytales*. Paju: Munhakdongne.
- Sun, J. (2013). *Children Literature Education*. Seoul: Parkleejung.
- Kang, Y. (1988). *Children Literature Education Theory and Realization*. Seoul: Yangsuwon.
- Choi, T. (2004). *Sociology*. Seoul: Hanul academy, 165.
- Shin, J. (2006). Pedagogical Shift in Translating *Guliver's Travels* for Children. *Children Literature and Translation* 11.
- Lee, U. (2010). American Children Literature and Censorship. *Children Literature and Translation* 20.
- Park, S. (2012). Translation Strategies for Child Reader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4(1): 117-138.
- Lee, R. and Hyun, E. (2015). Exploring Children's Reactions in Understanding of Death.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12): 612-623.
- Park, Y. (2009). *Before Saying God does not exist*. Seoul: Ivp.
- Kaplow, J. (2009). *Samantha Jane's Smile* (Shin, M. Trans.). Seoul: Lookbooks.
- Heris, R. (2002). *Goodbye Mousie* (Sunlight, Trans.). Seoul: Language and the World.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16; received in revised form on 16 May 2016; and accepted on 20 May 2016.

Author's email address

nayunkim90@hanmail.net

About the author

Kim Nayu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e is interested in Children's literature and Ideology in Translation Studies. Also, she works in patent translation as translator in a patent company.